മ

뉴스홈 | 최신기사

이동경, 독일 살케로 임대 이적...완전 이적 옵션 포함

송고시간 | 2022-02-01 07:47













이동경, 독일 2부 분데스리가 샬케 임대 이적

[샬케 트위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현대 미드필더 이동경(25)이 독일 2부 분데스리가 살케행을 확 정했다.

살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동경을 2021-2022시즌 말까지 임대 영입했으며,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돼 있다"고 발표했다.

로우펜 슈뢰더 샬케 단장은 "이동경은 한동안 우리의 레이더에 있었다. 스카우트 안드레 헤헬만이 한국으로 가서 직접 그를 지켜봤다"며 "우리는 그의 잠재력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경의 기술은 매우 돋보인다. 그는 몇 번의 볼 터치만으로 임팩트를 만들 수 있고, 막혀 있는 상황에서도 공간 을 찾는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7·8차전을 위해 국가대표팀에 소 집된 이동경은 잠시 독일로 이동해 메디컬 테스트를 받았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동경이 독일 구단 이적을 위한 메디컬 테스 트를 받으러 독일로 출국한다"고 전한 바 있다.

임대 이적을 확정한 이동경은 "매우 신중하게 샬케를 선택했다. 해외팀으로의 이적은 처음이라 큰 영광"이라며 "샬케가 가능한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 험 또 불합격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



한 빨리 분데스리가(1부)로 복귀할 수 있도록 내 역할을 하고 싶 다"고 소감을 밝혔다.

울산 유스팀인 현대중-현대고 출신으로 홍익대를 거친 이동경은 2018년 울산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같은 해 FC안양에서 임대 생활을 하고 울산으로 복귀해 지난 시즌까지 뛰었으며, 2021시즌 K리그1에서 28경기 6골 3도움을 기록했다.

K리그 통산 기록은 82경기 11골 6도움이다.

국가대표로는 2019년 9월 조지아와의 친선경기로 데뷔전을 치렀고, 지난달 15일 아이슬란드와의 친선경기까지 A매 치 7경기에 출전해 1골을 기록했다.

23세 이하(U-23) 대표팀에서 2020 도쿄 올림픽 등에 출전하기도 했다.

계약 절차를 마무리한 이동경은 1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복귀해 대표팀에 합류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한국시간으로 1일 오후 11시 두바이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시리아와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8차전을 치른다.

boin@yna.co.kr

관련기사

이동경도 유럽 진출 눈앞...메디컬 테스트 위해 독일행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2/01 07:47 송고

#이동경 #샬케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 02:22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나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탄

결국 우크라에

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尹당선인·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 화...美와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 138 찰에 고발

2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_ ☐ 60 대병원 자원봉사

3 '유퀴즈' 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_____ 으 60 안 맞아"(종합)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활동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뭐하고 놀까? ## 😛 →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사베포

테미벌뉴스 핫뉴스 톰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

뉴스+ 이슈토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톱뉴스사설 이시각.헤드라인 **광고** KTX.열차 AREX.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 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ح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모맥스 한민족센터 K컬쳐기확단(K-ODYSSEY) 채용 IR클럽 #홍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 성기홍 [편집인] 조채희

Yonhapne